

사회



해경 3009함의 영웅들 침몰하는 화물선에서 15명을 구조했던 목포해경 3009함 대원들이 27일 오후 신안군 가거도 동남쪽 1.5마일 해상에서 임무 수행중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기적의 구조’ 목포해경 전국 찬사

총리·전남지사·시민·누리꾼 격려 쇄도... 3009함에도 관심 증폭

목포해양경찰 경비함 3009함(함장 김문홍 경정·52)이 지난 26일 침몰하는 화물선에서 죽음을 직면했던 승객과 선원 15명 전원을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을 통해 무사히 구조했다는 소식(광주일보 12월27일 6면)이 전해지자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마치 영화같은 구출 장면이 소개된 지 하루가 지난 27일, 목포해경에는 김환식 국무총리의 격려 전화를 비롯해 전 국민의 칭찬이 쇄도했다. 이와함께 이번 구조작전을 수행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형 경비함 3009함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승객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한 것은 해경의 위상을 제고하게 된 계기"라며 "살신성인의 자세로 구조에 임한 해경 대원들의 송고한 국가관에 감동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등은 목포해경을 방문해 최재평 서장으로부터 전담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해들은 뒤 해경 대원들을 격려했다. 국내의 한 대형 참치업체는 해경 대원들을 위해 자사 제품 100상자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시민과 누리꾼의 격려 전화 및 칭찬 글도 하루종일 계속됐다. 해경의 극적인 구조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날 오전 시민 김병년씨는 "바다에서는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 (해경의 구조)가 숨 멎을라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고 목포해경이 소속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시민 허기영씨도 글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한 3009함 함장 이하 대원들을 '영웅'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전했다. 15명의 귀중한 목숨을 구했던 3009함의 함장과 해경대원 38명, 전경 17명 등으로 구성된 승조원들은 27일에도 임무 해역에서 불법어로 단속 등 평상시와 똑같이 근무했다. <하이브리드형 경비함 3009함 =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급파된 경비함 3009함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hybrid)형 3000t급 경비함인 3009함은 지난 3월 목포해경에 배치됐다. 길이 112.7m, 폭 14.2m인 3009함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에 착안, 12노트(1노트=시속 1.8km)

이하 지속운항시에는 전기모터를 이용하고 고속운항시에는 디젤엔진을 가동해 움직인다. 특히 3009함에는 기존 경비함에 7000마력 급 디젤엔진 2기만 장착돼 있는 것과 달리 1만마력 디젤엔진 4기가 장착돼 최고 29노트 속도로 운행할 수 있으며, 연료를 25% 가량 아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 3009함에는 시속 40노트 급 고속 단속 2척이 실려있어 구출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3009함은 지난 3월 배치 직후부터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이날 현재까지 총 46대의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화물선 침몰 원인 '안전 불감증'

지난 26일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12.8km 해상에서 발생한 목포선적 495t급 화물선 '함로페리 2호' 침몰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였다. 27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화물선에 차량 실은 뒤

파도에 의해 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인으로 고정시켜 묶어야 하는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일어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화물선 선장 김삼용(60·목포시 유암동)씨와 화물차 기

차량 체인 고정 안해 파도에 중심 쏠려 전복

사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화물선에 실린 화물차 바퀴에는 고정 로프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바퀴를 고정하는 괴임목만 끼워 둔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조사 결과 4~5m의 높은 파

도와 조속 20m가 넘는 강풍 속을 운항하던 선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배수구를 통해 바닷물이 유입됐고 바퀴에 고정된 끈목이 풀려 차량이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쏠려 배가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 김씨 등 운항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원생 폭행’ 목포 장애인 시설

인권위서 폐쇄·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목포의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원생 폭행 및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를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원생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목포의 장애인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목포시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인권침해가 심각한 이 시설을 조사해 달라”는 해당 시설 직원 이모(46)씨의 진정을 토대로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일부 생활교사가 최근 1년간 원생을 3차례 폭행했으며, 한 교사는 미성년 원생을 성폭행했으며 시설 측이 이성간 교제로 치부하는 등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또 이 시설은 실제 진료 계획이 없으면서도 2005년 7월부터 보조금 6300여만원을 지급받고서 이를 다시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시설 운영에 한해 지출하게 돼 있는 후원금 일부도 시설행사나 운영위원 선물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체벌·폭행하거나 폭언·고함·욕설·위협하는 행위, 부실급식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부적격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교사’로 포함돼 영구히 보육 업무를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206) 김장두



개인택시조합도 입법로비 의혹

2008년 특별회비 7920만원 편성 지원 추진

전국청년경찰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이어 개인택시 조합도 입법로비 의혹이 일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공개된 개인택시조합연합회의 회의문건에 따르면 이 조합은 2008년 특별회비 항목으로 7920만원을 편성, 이 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지급 대상을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위원장, 법안심사 소위원장, 각 당 간사, 법안심사 소위원회 등에 속한 해당 지역 사·도 조합 이사장 등으로 명시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법안심사 소위

원장 지역에 500만원, 간사 지역에 500만원, 소위원 지역에 300만원 등 5천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지급 방법도 적혀 있다. 지원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빙판길 교통사고 1명 숨져

27일 낮 12시35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교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모(48)씨가 눈길에 미끄러진 뒤 버스에 치어 숨졌다. 버스가 고모(46)씨는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발견한 뒤 급제동했지만 버스가 밀려 나가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무면허 의료행위 2명 검거

여수해양경찰은 27일 불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김모(여·26)씨와 박모(여·46)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검야 조사 중이다.

또 김씨 등에게 불법 마취제와 미용시술용 바늘 등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한 이모(36)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가격표 바꿔치기 마트 물건 훔쳐

○광주서부경찰은 27일 가격표 바코드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최모(3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45분께 광주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쇠고기에 1만1000원 짜리 가격표 바코드를 붙인 뒤 계산대 나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11월부터 이날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8만원 상당의 식품과 의류를 가져간 혐의.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값이 저렴한 물건과 비싼 물건을 구매할 것 처럼 활개 들고 나온 뒤 감시카 소름 한 틈을 타 가격표 바코드를 바꿔 붙여 이 같은 일을 저지르다 들통.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사진!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사진!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를 수강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림직, 기술직 강의를 수강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딱 1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강의를 수강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 구, 향, 행, 구, 현, 회, 학, 정, 학, 교, 육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1월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딱 1시간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개강 1월 3일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 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